

달구별 문화소통...광주·대구 청년들 놀고 즐기고 하나되다

달빛소나기

광주 청년들 대구 찾아 1박2일 교류
 예술발전소·수창청춘맨션서 문화 즐기고
 EXCO 국제식품산업전·음식박람회 관람
 개회식 행사 퀴즈놀이 통해 서로 알아가고
 퓨전국악·팝페라 등 지역 예술가들 공연
 이튿날 3·1만세길·계산성당 골목길 투어



광주와 대구 청년들이 문화로 소통하는 '2019 달빛소나기'가 23~24일 대구에서 펼쳐졌다. 150여명의 참가자들은 대구예술발전소, 수창청춘맨션, EXCO, 3·1만세운동길, 계산성당 등 대구 명소를 찾아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일보와 영남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광주·대구시가 후원하는 '2019 달빛소나기'가 지난 23~24일 대구에서 펼쳐졌다. <관련 기사 22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달빛 소나기'는 영·호남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행사다. 달빛은 대구와 광주를 상징하는 '달구별'과 '빛고을'의 합친 말이다. 소나기는 '소통', '나눔', '기쁨'의 앞 글자를 각각 따서 만들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6월 대구 청년들이 2일에 걸쳐 광주를 찾은 데 이어 광주 지역 청년 20여명이 대구를 찾았다. 대구 청년 130여명도 행사에 참여해 광주 청년들을 반겼다.

광주 청년들은 대구예술발전소, 수창청춘맨션, EXCO, 근대골목 등 대구 문화·예술의 현장을 찾아 서로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시간 30여분을 달려 대구에 도착한 광주 청년들은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2008년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벨트조성' 사업으로 대구시 중구 수창동의 옛 담배공장 별관창고를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이날 전시실에서는 사진, 영상 등 각종 뉴미디어를 활용해 동시대 인간의 문제를 조명하는 '빛, 예술, 인간'전이 열리고 있었다.

대구예술발전소 바로 옆 건물은 수창청춘맨션. 1976년부터 KT&G 담배공장 직원의 관사로 쓰이다 1996년 폐쇄된 후 20년 넘게 버려져 있던 건물로, 지난 2016년 문체부의 문화 재생 사업에 선정돼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변신한 곳이다. 50년 세월을 담은 아파트 외벽을 그대로 남겨둔 채, 한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을 실내 곳곳에 예술 작품들을 설치했다. 참가자들은 이들 예술 공간을 둘러보며 작품 사진을 찍는 등 문화를 즐겼다.

이어 광주 청년들은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EXCO로 향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4만4500여평에 달하는 이곳에서는 각종 사업 전시회와 행사가 날마다 펼쳐지고 있다.

이 곳에서는 마침 '대구국제식품산업전'과 '대구음식관광박람회'가 한창이었다. 세계 각국 음식부터 전국의 특산 음식, 독특한 가공식품 등 다채로운 음식을 선보이는 500개 부스를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다. 참가자들은 구운 치

즈, 떡볶이 등 시식 코너를 돌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지난 6회차 달빛소나기에 참여했던 언니와 함께 이번 행사를 찾았다는 심인에(여·26·광산구 산월동)씨는 "대구음식관광박람회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다양한 세계 음식을 맛보고 설랑·쌍 공예 등 작품을 만날 수 있어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영·호남 청년의 본격 교류 행사는 한국 패션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열린 '2019 달빛소나기' 개회식에는 이종재 광주일보 주필과 박운규 영남일보 편집국장 등이 참석해 영·호남 청년들의 만남을 응원했다. 조별로 인사를 나누는 두 지역 청년들은 각 지역 출신 연예인과 관광지, 지역 상징 등을 맞추는 퀴즈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역 MC이자 김재동의 스승으로 알려진 방우정 씨가 강단에 올라 '홍화인간(널리 인간을 기쁘게 하라)'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양 지역 출신 예술가들의 공연도 잇따랐다. 퓨전국악 연주단 '여울'은 '열두달이 다 좋아', '난감하네' 등 국악 가요로 흥을 끌어올렸고, 팝페라 그룹 '레드 드레스'는 'Hero', '사랑의 배터리' 등을 성악 무대로 선보였다. 1970년대부터 이어지는 춤의 역사를 한 무대에 담아낸 치어리더 팀 '블루딩커스', 시원한 가창력으로 '천년의 사랑' 등을 부른 이효진도 청년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다음 날에는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서 '근대문화로 골목투어'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3·1만세운동길, 계산성당, 이상화·서상돈 고택 등 대구의 근대 역사가 오롯이 담긴 골목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투어를 즐겼다.

주어진 사진과 한 문장의 단서를 따라 30개 장소를 찾아가 인증사진을 찍는 '포토미션 투어'도 참가자들의 열정을 돋웠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전시가 마련돼 있는 향촌문화관을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두형(23·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씨는 "대학 홍보 활동을 하다 의미 있는 행사가 있다는 소개를 받아 참가하게 됐다"며 "광주와 대구 두 지역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특별한 행사에서 서로 친해져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대구=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진=영남일보 이현덕기자 lhd@yeonam.com



달빛동행 한마음 행사 '2019 달빛소나기'에 참가한 광주지역 청년들이 24일 오전 대구 중구 근대골목에서 포토미션투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 지역 청년들이 대구 3·1만세운동길 내 3·1운동 당시 사용된 태극기를 복원한 벽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 달빛소나기' 교류 행사 무대에 오른 여성 팝페라 그룹 '레드 드레스'가 열창하고 있다.



흥겨운 국악 가요로 '2019 달빛소나기' 첫 공연 무대를 장식한 퓨전국악 밴드 '여울'의 공연 모습.



'2019 달빛소나기' 교류 행사에 참가한 광주·대구 지역 청년들이 퀴즈를 풀며 즐거워하고 있다.